

D.D.R·테크노 댄스 청소년 포교 '새바람'



◇교계의 청소년 문화행사에 테크노 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주최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한 명성여중의 6인조 댄스그룹 '연화합합'.

신세대 선호...찬불가 접목 필요

청소년 문화포교의 방편이 날로 다져지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 교계에서 마련하고 있는 행사에 참석해 보면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오르는 것이 D.D.R과 테크노 댄스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테크노 춤이 공연되는 곳이면 언제나 객석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리를 꽂 매운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지부가 5월7일 가리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중립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 중등학교에서도 참여의 열기가 대단했다. 5백여명이 참석한 객석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댄스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일어나 춤을 짜라 추는 등 인기 연예인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던 성동기계공고 댄스그룹 '모코사'의 박재현군은 "봉축 행사중 청소년들을 위해 처음 마련된 행사라 1개월전부터 TV에 나오는 유명 댄스그룹의 모습을 보며 맹렬

히 연습했다"며 "태권도의 친구들도 많이 응원해 줘 불자임이 자랑스러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같은날 저녁 탑골공원 앞에서 한미음원원 중고등부 학생회가 마련한 '보컬 댄스음악 파티'에도 청소년들을 비롯한 2백여명의 시민이 동참해 축제 분위기를 뽐냈다.

또 5월14일 'D.D.R 춤 잔치 경연대회'를 연 광동중학교와 목동청소년회관에서는 신청자들이 쇄도하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자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청소년 포교 형태의 변화는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부는 4월27일 청소년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봉축백일장과 함께 테크노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청소년 문화 행사에서 이처럼 댄스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청소년들의 기호와 성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기존 프로그램들로만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교계의 모 중립학교에서는 봉축기간중 찬불가 합창대회 개최 공고를 내자 신청자가 저조해 진행이 어려웠던 반면 테크노 경연대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3배의 신청자가 몰려 예심을 이틀에 나눠 치른 적도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교계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탈피해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찬불가 부르기, 국악 사물놀이 공연, 백일장 등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고려한 기존의 행사를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국장은 "N세대 청소년들의 기호에 치우친 프로그램만 늘어남으로써 청소년 포교의 현상이 자칫 놀이마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테크노찬불가, 퓨전 전통놀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부처님 그리기 등 기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사찰 편역을 찾아서

⑥ 해강의 쌍계사·경국사 편역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1868~1933)은 의숙인 이희수(李熙秀)에게 글씨를 배웠고 18세때 청에 유학하여 서화를 연구하였다. 귀국 후 궁내부 시종관(侍從官)을 지냈으며 고종의 어명으로 왕세자 영친왕의 스승이 되어 서화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한 일 본에서 사진기술을 배우와 1903년 종로에 '천연당'이라는 한국 최초의 사진관을 열기도 했다. 1913년에는 상업화랑인 '고금서화관'을 개설하였고, 1915년에는 안중식, 경주 불국사 <불국사>, 하동 쌍계사 <삼신산쌍계사>, <선종대가람>, 양산 통도사 <통도사>, 합천 해인사 <대적공전>, <가야산해인사> 등이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 앞쪽에 걸려 있는 <삼신산쌍계사> 편역은 해강이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곳을 유람하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조선 후기쯤에 쓴 행서로 된 산문사액(山門寺額)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 편역의 글씨는 교예(古隸)의 필



삼신산 쌍계사 글자 납작하게 쓴 필법 눈길
다 로 경 권 근대양식에 담백한 멋 지너

(安中植), 조석진(趙錫晉) 등과 함께 '서화연구회'라는 3년 과정의 사립미술학원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해강은 각체의 글씨를 모두 잘 썼으며 산수·화조·난죽뿐만 아니라 채색화에도 두루 능하였는데 특히 대자(大字)와 묵죽에 뛰어나다. 그는 금강산 마하연 바위 위에 사람크기만 한 큰 글씨를 쓰기도 하였으며, 안순환(安淳煥)과 함께 만든 같은 형태의 사액을 수십 개의 사물에 나눠주기도 하였다. 그가 쓴 편역으로는 서산 개심사 <상왕산개심사>, 서울 경국사 <다로경권>, <회암회>, 장성 백양사 <대가람백양사

법으로 중간 글자인 '三', '山', '三' 세 자를 납작하게 써서 장법(章法)의 통기(通氣)를 고려한 흥미로운 글씨이다.

서울 경국사 관음전에 걸려 있는 <다로경권> 편역은 해강이 영산전을 건립하던 1930년경에 <영산전> 편역과 함께 쓴 것으로 보인다. 편역은 좁은 침묵의 변죽을 대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전형적인 근대의 양식을 지녔다. 편역의 글씨는 한예(漢隸)의 결구에 고경(古勁)한 필선을 지닌 예서로 차를 달이는 화로와 경서가 있는 담백한 정취를 이르는 말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번뇌 씻는 비누 여드름 제거·피부 미용 효과

새상품 비누의 이름도 재밌다. '번뇌를 씻는 비누'. 특수필름을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이 비누 중앙에 새겨진 이 제품은 몸과 얼굴을 씻을 때마다 짧은 순간이지만 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하고자 고안했다. 또 100% 천연식물성 원료를 사용



해 청소년들의 여드름 제거와 여성 불자들의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격은 1개에 1900원. (0561)741-2121

"돌아볼수록 높은 스승의 은혜"

명성여고 퇴임교원 40여명 초청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5일 명성여고 교내식당. 케익 절단이 끝나자 재학생과 졸업생 50여명이 부른 '스승의 노래'가 실내에 울려퍼졌다. 명성여고 학생회와 동창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퇴임교직원 40여명을 초청해 위로하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개교 70주년을 맞아 '스승님은 영원한 명성인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건 명성여고 학생회는 그동안 학교의 버팀목이 됐던 교직원들 초대에 다가와 노래 공연을 펼치는 등 '옛스승 모시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0여년동안 평교사로 재직했던 강봉규선생님은 재학생들의 안내로 교정을 둘러보면서 '방과후에 학생들과 함께 관수동에서 이사와 어수선했던 학교를 정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화단을 정리했던 생각이 난다'고 감회를 털어냈다.



◇명성여고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퇴임 교직원 40여명을 초청, '옛스승 모시기' 행사를 가졌다. 이원주 명성여고 교장은 "참스승을 존경하는 풍토와 조성은 미래의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요하다"며 "올해를 계기로 매년 스승의 날에 '옛스승 모시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미래의 청소년' 주제특강

대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6월 3일 오후 2시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김경일 성암교육원장이 진행할 이번 특강에서는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가치관 등이 구구한 이야기식 강의로 펼쳐진다.

또 특강 전에는 청소년 5백여명과 함께 엑스포 행사장에서 환경정화 운동도 벌인다. (042)488-0732

디지털 상담실 유적답사

디지털청소년상담실은 28일 여

청소년단식

주 신복사를 비롯해 목야박물관과 도예촌 등지로 순례 문화유적 답사를 떠났다.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혜능보육원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복사에서 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인근 도예촌에서 도자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실습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0431)212-5711

청소년 종합예술 대전

한국불교청년회와 마음의 전화를 공동으로 6월4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강경당에서 제5회 참

나 청소년 종합예술대전'을 개최한다. 눈술·미술·서예 등 3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지도자부로 나눠 열린다. 수상작은 7월12일에 발표된다. (02)326-0248

대불련 전국지부장회의

대학생불교연합회는 6월10·11일 양일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전국 지부장단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대불련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8월3일부터 개최되는 여름대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2-0239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과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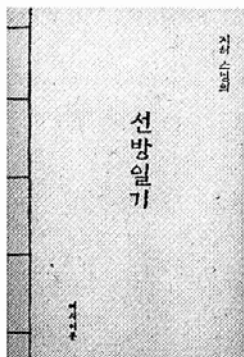
"겉만 보고 입삼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린 절명보다 더 큰 절명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른다. 허산하느니라."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때로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으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득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일반도 없다. 정성과 욕제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적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해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마은 여시마은 '돌은 바, 한 척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였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풍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마은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0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왕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뜻깊은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역, 김홍근 번역 /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이계열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조연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 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함선의 요지를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 B6 변형 282쪽 / 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학·학술)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 B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학·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뜻깊은 음성 '환상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 B6 변형 182쪽 /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